

서평 『빠름에서 바름으로』

공교회의 터를 세우다



작년부터 모(母)교회를 떠나 신촌의 작은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학부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특별히 CTC(크리스천씽킹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교회교육에 대해 준비해 둔 상황이라 첫 사역이 두렵지 않았다.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역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는데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모질었다. 내가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절반이 이혼가정이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을 돌봐 줄 어른들이 없었다. 아이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 후 5~8시간을 피시방에서 보냈다.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들과 청년부를 멘티-멘토로 연결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빠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예배만 드리고 떠났다. 그 위의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4~50대는 직장과 가정의 스트레스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자녀인 유치부와 유초등부까지 타격을 입었다. 결국 교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청년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버렸다.

신동식 목사의 < 빠름에서 바름으로 >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저자는 목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목사이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 운동본부장으로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총 13개의 진단(1부)과 15개의 대안(2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내용들을 읽어 보면 저자가 꿈꾸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강해설교로) 선포하는 목회자와 신앙고백적 성도로 이루어져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이다. 이것은 이 책의 주제이며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부에서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델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진단한다.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는 13가지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대형교회 바라보기, 터가 무너진 공교회, 무너진 성경의 권위, 천박한 설교, 부족한 구원관, 재정의 불투명성, 도덕적 무능력, 도구주의 목회, 혼합주의 교회, 정치적 이념, 탐심과 욕망, 표지를 분실한 교회, 빈약해진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데 이 13가지 문제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너진 성경의 권위로 인해 천박한 설교가 나오고, 천박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부족한 구원관과 도덕적 무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보면 그 안에 다른 문제들도 함께 얹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온 것과 같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서 다른 모든 부분이 무너진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라는 우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대형화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결국 이것이 교회를 잡아먹었습니다.”(26면)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목회자들부터 교회의 대형화가 곧 목회의 성공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켰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속화가 실천적 무신론자,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들을 만들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꿈꾸는 것은 그것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한다. 팀 켈러는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 우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대형교회가 우상화됨으로 인해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졌다고 말한다(33면). 공교회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주보를 가져오면 교회 출석이 인정됐다. 교회를 옮길 때에도 이명증서가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자신이 다녔던 교단 교회로 옮길 만큼 교회의 교리교육과 신앙 색깔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31면). 하지만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대형교회로 인해 수평이동이 생겨나고 교단적 특색이 다 사라졌다.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 장로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교단은 매우 보수적인 곳에 속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수련회 때 ‘쭈쭈방언’을 알려주는 목회자도 있었다. 우리는 실로 경악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단은 짬뽕교라는 표현하기도 했다. 저자는 우선 교단들이 자신들의 가진 교리와 헌법에 정결해야 무너진 공교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면).



김영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영어과정(AGS)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목회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CTC(크리스천씽킹센터, 대표 유경상)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이며 신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천 성교육을 연구하며 대안학교와 교회 수련회에서 특강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원인을 천박한 설교에 두고 있다(45면). 천박한 설교란 성장을 위한 설교,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 성공을 위한 설교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천박한 설교는 목회자가 평소에 품고 있는 세계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설교자는 성경전체가 전달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깊게 잠겨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노력과 집중을 요구한다. 또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천박한 설교는 이것을 무시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하여 결국 저자가 경고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허탄한 이야기(딤후 4:4)가 들리고 있고, 성도들이 허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47면). 바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가 있는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만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이다.

기윤실이 조사한 신뢰지수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꿔야 할 것으로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가 42%로 가장 높았다고 한다(67면).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실제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말한다. 세상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도덕성인데 횡령과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칼부림까지,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저자는 도덕성과 더불어 표지를 분실한 교회를 언급한다. 프란시스 웨퍼의 말을 인용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표지는 사랑(102면)이라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고 말씀하셨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거룩함과 사랑에 있다. 그런데 탐심과 욕망이 이 거룩함과 사랑을 식게 하고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66면). 바른 신학을 상실함으로 각종 성장 세미나를 위시한 도구주의 목회를 추구하게 되었다(80면).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상실함으로 다원주의, 상대주의, 엘리트주의 등 혼합주의 교회로 변질되게 만들었다(84면).

저자는 이렇게 어두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한 후 2부에서 15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의 속도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관이 핵심이다. 저자는 숫자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한다(123면). 또한 교회와 신앙에는 대박이 없다고 하였는데 교육전도사로 중고 등부를 맡으면서 대박을 노렸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평균 출석이 15명 정도였는데 어느 날 30명이 넘게 왔다. (심지어 전도축제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인원이 배가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회 성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날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웬지 모르게 우울감이 찾아들었다. 내 안에도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회의 성장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122면). 그런데 소위 교회를 부흥시킨 스토리를 담은 책들을 보면 온통 기도로 성공한 간증들이 넘쳐 난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 밤낮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내면에서는 사람의 원함과 성령의 주권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겨 내는

방법은 오직 인내다. 빠름보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소양의 변화를 촉구한다. 소비자 중심의 설교에서 십자가 설교로, 성장 기술자에서 설교자로, 유행에서 자궁심으로, 지름길에서 좁은 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목회현장에서 세속화에 맞서 몸부림치면서 추구해 온 목표들이다. 초대 교회가 보여 주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고민하며 싸워온 흔적들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목회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에 가장 슬퍼한다. 저자는 가나안 성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58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백적인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과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 날 것이 분명하다.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신앙고백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무너질 것이 뻔하다(163면).

또한 고백적 신앙인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적신앙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173면)은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사적영역에 가두고 우리들만의 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상과 동일하게 부와 허영을

좇지 말고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라고 강조한다(178, 206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정직', '책임의식', '배려심' 등이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게 해야 한다.

끝으로 저자는 교인에서 식구로, 분리형 예배에서 통합형 예배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공동체성의 회복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임을 밝힌다. 식구는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는 의미이다(225면). 실제로 천명단위의 교회만 다녀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같은 부서에 있어도 누가 왔다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많으면 누군가 교회에 새로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드물다. 반대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목자가 양을 모르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 이 책을 읽은 시기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였다. 손봉호 장로는 교회가 종교개혁 이래 가장 타락했다고 하였는데 실상이 그러하다.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루터처럼 등장하여 개혁하고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루터의 후손인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쓴 저자도 그것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 모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인 만큼 그들의 신학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고 빠름에서 바름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